

4월 1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1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GM 악재로 혼조	GM의 파산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보잉과 쉘브론의 실적악재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뉴욕증시는 오전중 약세를 면치 못하며 다우지수는 한 때 8,000선을 하회하기도 했음. 그러나 오후들어 은행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뉴욕증시가 반등을 시도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 경제관련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소식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했음. 결국 뉴욕증시는 장막판 낙폭을 크게 줄이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25.57포인트(0.32%) 하락한 8,057.8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7포인트(0.05%) 상승한 1,653.31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17포인트(0.25%) 오른 858.73을 각각 기록함.
GM 급락..파산보호 신청 우려감 다시 부각	미국 정부가 GM에게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영향을 미쳐 GM이 16% 급락했음. 이같은 움직임은 채권단과의 출자전환 협상이 실패하고, 노조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GM의 파산보호신청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음. GM은 현재 채권단에게 280억달러 상당의 부채를 출자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노조에 대해선 퇴직자의료보험기금(VEBA)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음.
보잉·쉐브론 부진한 실적으로 약세	다우 구성종목인 보잉도 5%대의 급락세를 보였음. 회사측이 1분기 이익전망치를 낮춘데 이어 제프리 증권이 보잉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음. 대형 에너지기업인 쉘브론도 올 1분기 이익이 전분기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으로 2% 가까이 떨어졌고, 국제유가가 4% 넘게 하락한 영향으로 엑손모빌도 2.6% 떨어졌음. 소형 생보사인 젠웨스파이낸셜은 미 재무부의 구제자금을 신청할 지원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소식으로 18% 급락했음.
국제유가 4% 하락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4% 넘게 하락하며 배럴당 50달러선에 턱걸이했음.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5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19달러(4.2%) 하락한 50.05달러에 마감했음.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원유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IEA는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가 하루 평균 8,340만배럴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음.

제목	주요 내용
車업계 "차값 추가 할인은 어렵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13일 "정부 발표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차값 할인 폭을 크게 늘렸다"며 "5월1일부터 세금인하 조치가 시행된다고 해서 할인폭을 더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음.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자동차 업체들이 세금 감면 폭과 비슷한 정도로 차값을 깎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었음.
윤증현 "올 경제성장 -2%~0% 전망"	윤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경제상황이 좋아진다면 경제성장률 0%도 가능한가"라는 무소속 강운태 의원의 질문에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다른 여건이 개선되고 추가경정예산이 효과를 발휘해 0%로 갈 수 있다면 대성공 아닌가 말한 적이 있다"고 대답. 그는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0% 사이로 보면 되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음. 윤 장관은 또 추경 효과에 대해 "올해 중에 0.8%포인트, 내년에 0.7%포인트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1.5%포인트 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음.
삼겹살`고궁`...500 g 이 1만원	14일 농림수산물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삼겹살 중품 500 g의 평균 가격은 13일 현재 1만80원을 기록. 이달 1일 1만244원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소폭 하락한 값이지만 지난달 30일 1만156원으로 1만원을 넘긴 삼겹살 값은 최근 1만원 안팎에서 오르내리며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음. 삼겹살 500 g의 일일 평균 소매가격이 1만 원을 넘긴 것은 작년 6월 중하순 이후 사상 두 번째임.
중국 부동산 향후 2년간 50% 하락할 수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향후 2년에 걸쳐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기관의 전망. 영국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카오 진하이 교수는 최근 자산(부동산) 가격의 뚜렷한 반등은 중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실질 수요보다는 넘쳐나는 유동성과 문제가 있는 사기성(fraudulent) 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
中 1분기 성장률, 6.3% 전망..10년 최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르면 수출 급감 여파로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약 10년래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이 14일 전망. 블룸버그통신 전문가들은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에 비해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8%를 기록.
중국진출 日 기업들 "中, 경기하강 끝났다" 판단	중국에서 영업 중인 일본 기업의 65% 가량이 중국 경제가 순항고도로 진입하거나 이미 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닛케이 조사 결과, 응답자의 33.3%는 중국 경제가 더이상 하락하지 않고(flat) 있다고 판단했으며 31.5%는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고 답한 반면, 29.6%는 전자업체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
日 물가 심상찮네, 디플레이션 우려 '솔솔'	일본의 물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 일본은행은 이날 일본의 3월 기업물가지수(CGPI)가 전년동기대비 2.2% 하락했다고 발표.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감소세. 기업물가지수는 전달에도 1.6%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